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7>



최초의 사판승, 아난의 조건

부처님은 딱 누구라고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아난존자를 짐작어두고 계셨습니다. 이제 서서히 노년에 접어든 부처님.

누군가 곁에서 함께 있어드리며 사소한 일상 의 일들을 챙겨드리고 거대한 승단의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할 사람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몇 사람이 시자 노릇을 했지만 들쭉날쭉하여 부처님이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챈 목련존자가 아난존자에게 갔습니다.

“아난존자,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을 시자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헤아려 부처님의 시자가 되어 주십시오.” 부처님의 시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과 천신의 스승인 어른의 비서실장이 된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큰 광영이겠습니까? 나 같은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러겠노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난존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련존자시여,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세존은 모시기 어려울 때에 시자를 두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에게 힘이 남아둔다면 시자는 필요 없

의 시자가 되어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실 때까지 아무런 잡음 하나 들리지 않게 원만히 시자노릇을 감당해 냈습니다. 아난존자는 깨달음을 향한 자신의 수행마저도 잠시 늦추고 부처님께 봉사하고 대중에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런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에 슬픔에 잠겨 차마 곁에 있지 못해 모습을 감춘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아난존자를 불러오라 하셔서 그를 격려하신 일이 있는데 이 대목을 읽을 때면 언제나 제 가슴이 뭉클해 집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슬퍼 말아라, 너는 나를 모시면서 몸과 입과 뜻의 행이 착하였다. 처음부터 두 마음이 없어 나는 한없이 안락하였다. 과거와 미래의 그 어떤 부처님도 너만한 시자를 두진 못하였으리라.”(중아함 시자경)

‘이판사판’이란 말이 불교에서 나는 말임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출세간의 진리를 추구하며 오묘하게 수행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사람을 이판승이라고 한다. 그런 수행자의 본분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세속에서 수도자와 범부들이 원만하게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사판승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난존자가 최초의 사판승이 아닌

급박하게 돌아가는 총무원장 선거 지켜보자니 일심으로 시자 노릇했던 아난이 그리워집니다

습니다. 하지만 시자를 필요로 한다는 말은 이제 일을 쉬어 처리하기에 힘이 부친다는 뜻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시자는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부처님의 의중을 간파하고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출세간의 스승과 세속의 잡다한 업무와 사람들을 매끄럽게 이어줄 사람! 아난존자가 시자가 된다면 그런 막중한 직책을 감당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아차린 아난존자가 정중하게 거절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련존자는 아난존자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아난존자는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세존의 시자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부처님의 현 웃이건 새 웃이건 입지 않겠습니다.

둘째는, 따로 청한 부처님의 공양을 먹지 않겠습니다.

셋째는, 비을 때가 아니면 부처님을 뵈지 않겠습니다.”

이 소원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은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난존자는 부처님

과 감히 단정을 지어줍니다.

지난 9월11일 이른 새벽 불교계에 날아든 비보 -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법장 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소식은 모든 이들을 충격과 슬픔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온통 새로운 총무원장 소임을 어느 분이 맡을 것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종단의 행정에 무지한 저도 호기심이 동할 정도이니 그만큼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의 불교, 특히 조계종의 위상은 무시할 수 없는 큰 힘을 지닌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신문기사를 읽어보면 마음이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삭막한 현실세계 속에서 이제 겨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정신이 한국 땅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참인 요즘에, 그 모든 불사(佛事)의 ‘총대’를 맡 ‘사판승의 어른’을 모시기가 별로 순탄치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아난존자를 시자로 삼은 것과 총무원장 소임 맡을 스님을 선출하는 것은 분명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최초의 사판승인 아난존자의 인품이 자꾸만 그리워지는 것은 아마 지금 총무원의 급박하고 이수선한 움직임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이미지(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나를 모르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부처라는 거울’로 자신을 비춰 보라는 무진장 스님은 나를 놓아버리고 타인을 공양할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무진장 스님

(동국역경원 후원회장)

동국대 건학 100주년을 200일 앞둔 10월 20일 동국역경원 후원회장 무진장 스님이 서울 동국대 정각원에서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문했다. 스님은 법석에 올라 조용히 눈을 감고 ‘어래십호(阿來十號)’를 암송한 뒤, 좌종을 천천히 둘러보며 법문을 시작했다. 학생들 앞에서 50여분 간 계속된 법문은 시종일관 힘차고 명쾌했다.

일생을 전법에만 매진해온 노스님의 감로법문이 끝날 무렵 천둥 같은 박수가 이어졌다. 법석을 내려올 무렵 가만히 뒤에서 무진장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던 동국역경원장 월운 노스님이 큰절로 법사의 명법문에 감사의 예를 올렸다. 무진장 스님의 이날 법문을 정리 요약한다.

불교의 핵심, 자비와 지혜

부처님은 <회엄경>에서 말씀하시길 고요하게 살아가, 그 속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엄경>에 보면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러 갈 때 제일먼저 만난 것이 문수보살입니다. 53번째 만난 보살이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자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불교의 핵심이 자비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재동자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법문을 문수보살에게서 듣습니다. 왜 그 법문이 위대했는가 하면,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거울속에 자신의 지나온 일생을 비춰 봤기 때문입니다.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이라는 거울에 비춰 봤을 때 자신이 대단히 교만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탐진치(貪瞋癡)’를 문수보살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은 분들도 법사의 말을 들지 말고 부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보세요.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비춰 보기 바랍니다. 불교를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며 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귀한 법문을 듣고 실천하면 확실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수행하는 것이지만 어떤 절대적 존재인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빌어서 행복해지는 그런 일은 절대적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50~60대인 사람들은 상당히 통제

된 사회를 살아왔던 사람들 일겁니다. 그러나 여기 앉은 젊은 대학생들이라면 좀더 개방된 사회를 경험하며 자랐을 겁니다. 통제된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개방된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위태롭고 무질서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개방된 사회에서 생활해온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 서로를 갈등하고 하나로 융합되지 못하는 사회는 더 불안해 질수 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창조적 인격상 만들어

그렇다면 오늘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을 살펴봐야 할까요. 그 방편이나 도구가 필요하면 어떤 것이 그에 맞는 도구가 될까요? 종이와 자를 때는 데는 가위가 필요하고, 마당에 서있는 나무를 베어내기 위해서는 도끼가 필요합니다. 또한 뽕나무를 자르는 데는 톱이 필요하지요. 스님의 머리를 깎는 데는 삭도가 필요합니다.

동양에서 유교사상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교의 핵심사상이 될 수 있는 ‘중용’을 모릅니다. 마천가지로 동양에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중도’를 모르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불교의 중도는 연기를 말하지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서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연관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를 모르고는 절대 행복해 질 수

Wellbe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아로하 : 1개월분 (270캡슐) 12만원
향적당 : 1개월분 (270캡슐)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조사 : 선농BIO식품(주)
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썩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리점 및 썩뜸기 체험방 모집!**

대박점은 **특새업종**

하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때야 한다.”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썩뜸을 할 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치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썩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인자도 간편하게 썩뜸을 할 수 있다.

제품의 특징

- 최종기 내부에 은열판 장치로 썩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의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치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최종기에 등받이가 부처님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의료용구로 허기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대 증류

ISO 9001:2000

의료용구 제조용허가: 제 03992호
의료기구 제조업허가: 제 19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JC07019-3001
식품안전등록: 제 0306642호
식품안전등록: 제 0318670호
식품안전등록: 제 0326960호
의약품제조: 제 0344295호
의약품제조: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번호: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썩뜸기 체험방 모집

문의전화 02)521-4453

www.moxda4u.com **오행썩뜸·썩뜸기/음향썩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부처라는 거울로 나를 비춰보라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에서 행복해 질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나 외에 모든 이들을 공양하라'고 가르칩니다. 공양이란 불교식으로 나 말고 다른 이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 진다는 겁니다. 나만 위해 살면 행복해 질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놓아버리라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 가슴에 있는 자존심이라는 것은 백년을 살아도 향기가 나지 않는 늙은이입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는 한 절대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혜와 인격을 갖추는 것을 '성불(成佛)'이라고 합니다. 성불이란 인격을 완성하는 거라 했는데 그럼, 인격의 완성은 불교인들만이 독점 가능한 것인가? 모두를 대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스스로 교만하고 자존심을 세우며,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부처님을 닮기 위해 불교를 믿는 겁니다. 내가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어 내가 부처님을 따르면 부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내 불행을 부처, 예수, 노자, 공자가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창조적 인격상을 만들어 부처님과 같은 이상적 인격을 갖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한생각 바꾸는 것이 '禪'

그런데, 입으로만 진리를 말해서는 만교의 세월이 지나도 견성은 불가능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입으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이 법당 안으로 들어와 보니 어둡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흔히 세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법당 안을 환하게 밝힐까 논리적·학문적 연구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스님들은 이 캄캄한 방 안에서 스위치를 눌러 단박에 어둠을 밝히는 '선(禪)' 공부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신구의(身口意) 삼업으로 짓는 '사특한 지혜'를 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생각을 바꿀 때까지만 가능하며, 그런 면에서 '선'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대하다는 겁니다. 일평생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게 손가락 하나로 스위치만 누르면 법당

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선을 뒤는데 어떤 자격이나 차별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뒤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없게 되어요. '선'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오직 한 생각 바꾸는 데 그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일체의 반야지혜가 다 자기 자신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지혜의 출발점은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있어야요. 지금 여기 앉은 이들 모두 한분도 빠짐없이 다 부처입니다. 그런데 다들 자신이 중생이라는 생각에 집착해 있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고 가장 놀라웠던 것이 일체중생이 부처인데 왜 중생의 탈을 쓰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주만물이 연기법에 의해 다 얽혀 있는데 오직 나밖에 모르는 중생심만 앞세워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착각속에 살지 말고 자기 성찰을

오늘 제가 말한 모든 것이 비단 불교만의 진리는 아닙니다. 혹시, 오늘 법회 나오기 전에 나는 불교를 안 믿으니 법회 안 갔다 했던 분이 지도 모르겠습니.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가 없다면 종교가 왜 필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나는 불교 믿으

니 기독교는안 되고, 나는 기독교 믿으니 불교는 안 된다는 식의 사소한 집착에서 벗어나세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두꺼비 얘기 하나만 하고 마지겠습니다. 나는 스님이 된 후에 만행을 많이 했어요. 처음 타지 않고 걸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지를 순례 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만 늙 한 마리가 그런 만행을 즐겼나 봅니다. 어느날 서울 두꺼비가 부산 구경을 가는데 중간집에서 추풍령이라고 합니다. 한참을 기어서 추풍령에 도착한 이 어리석은 두꺼비는 자신이 어디쯤 왔는지 확인하고 싶어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쁜 길을 멈추고 앞다리를 번쩍 들고 발뚧 일어나 기지개를 한껏 켜서 부산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두꺼비가 보니 서울이나 부산이나 별로 다를 게 없더라 말입니다. 짐짓 "부산이라고 뭐 별거 아니네" 하면서 가쁜 길을 포기하고 서울로 되돌아 가버리더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놈의 눈은 앞으로 나있지 않고 위로 있으니, 발뚧 일어하면 부산이 아니라, 자신이 지나왔던 서울이 다시 보였던 것이죠(웃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어리석은 두꺼비처럼 뒤집어진 눈으로 '전도몽상(顛倒夢想)'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착각 속에 살지 말고 모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살아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무진장 스님은 동국대 건학 100주년을 위해 2001.10월 20일 정각원 법당에서 교직원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반야지혜의 법문을 설했다.



권력·명에 멀리하고 전법·교학 연구에 일평생

무진장 스님은

무진장(無盡藏) 스님은 일생 동안 교학을 연구하고 전법에 만 힘을 쏟아왔다. 조계종 포교원장을 맡았던 것 외에 평생 세속적 권력과 명예와는 담을 쌓고 살았다. 출가 후 오랜 동안 도심에서만 생활했으면서도 겸약한 모습으로 불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교학에도 경지를 이룬 요즘도 전국의 수많은 불자들을 상대로 지혜의 눈을 열어주려 노력하고 있

다. 언제나 밝색 승복을 입은 무진장 스님을 조계사 주변 책방에서 마주칠 수 있을 만큼 스님의 책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1933년 제주에서 태어난 무진장 스님은 1956년 법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동국대 초대 교법사에서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태국 외트 벤차마보딧 사원에서 남방불교를, 일본 경도불교대학원에서 천태교학을 연구했다. 현재는 조계사 한주와 동산불교대학 학장으로 있다.



금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도업 스님

가끔 운수남자(雲水衲子) 생활이 그리워진다. 해제질이 되면 걸망을 짊어지고 주저없는 만행을 하다 수행하기 좋은 선원을 찾게되면 방부탈 들어기도 하고, 더러는 조용한 암자를 찾아 홀로 정진을 하기도 한다. 동안거(冬安居)는 더욱 매력적이다. 적막한 산사에 붙어닥치는 매서운 추위와 따끈한 구들장의 상대적인 환경은 모든 망상을 씻어주는 듯 화두가 더욱 성성해지고 선미(禪味)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도업(道業) 스님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 강원도 어느 토굴에 있을 때 잠시 함께 생활을 했다. 도업 스님은 이목이 수려하고 별로 말이 없는 조용한 성품이었지만 나름대로 기상이 있었다.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림·문병성

전생부터 많은 수행을 해온 듯 수행자의 이미지가 고스란히 풍겨났다.

당시 도업 스님은 도를 이루려면 건강한 몸을 가진, 그러니까 30대때 승부를 해야 한다며 자주 웅평정진을 했다. 그러다가 무리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 싶으면 병원을 찾기보다는 정진력으로 극복하고자 하던 눈푸른 남자였다.

스님은 수행환경이 좋은 나쁘든 그러한 것에 구애 받지 않고 살았다. 그렇다고 어느 절에서든 오래 안거하는 체질은 아니었다. 그저 인연이 있는 것대로 일어난 없는대로 거쳐하다가 어느 날 홀연히 떠나버린다. 아무런 미련도 아쉬움도 없이... 그러한 모습에서 자연과 하나되어 버린 무애지재한 수행자를 느낄 수 있었다.

1990년대 초, 조계종 총무원에서 총무원장의 전산화 작업이 필요함을 느꼈다. 나도 컴퓨터를 배우려고 286을 구입해놓고 학원에 다니려고 했다. 당시 종단이 꽤 시끄러워 세상의 이목을 받던 시절이라 학원 다니는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해제를 하고 우리 절에 온 도업 스님이 사무실의 컴퓨터를 보더니 흥미를 느꼈는지 배우고 싶다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날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게임을

가르쳐 주면서 배워보라는 것이다. 아녜게 아니라 종단이 안정되면 배워야겠다 싶었기에 몇날 며칠 망설였는데, 도업 스님이 쉽게 컴퓨터 익힌 것에 자극을 받아 나도 일찍 배우게 되었다.

도업 스님은 수행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집중력이 좋다. 또 다재다능하다. 컴퓨터만이 아니라 운동도 탁월하게 잘 한다. 그리고 엉뚱한 면도 있다. 언젠가 스님이 운전을 배우지 얼마 안된 초보운전시절, 꽤 먼거리에서 찾아왔는데, 하는 말이 '길작'이다. 오다보니 빨간불은 빨리 가고, 파란불은 안전하게 가라는 것 같다는 것이다. 초보운전에 누구나 달리고 싶은 심경을 그대로 표현한 말일 것이다. 수좌다운 말이라고 느꼈다. "그럼 노란불은 뭐요?" 물으니,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 아닐까 대답해 서로 웃었던 적이 있다.

한때는 문중 절에 주지 소임을 맡게 되었다며 열심히 불사도 하고 포교를 하더니 어느날 주지 한만기(4년)도 마치기 전에 그만 두겠다고 한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너무 현실에 안주하는 것 같고 인일해서 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소유·집착 하지 않으려는 정신적 여유 지닌 참수행자

이후, 걸망을 메고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인연이 다행이란 하겠지만, 소유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려는 수좌가 아니면 어디 그런 마음이나 낼 수 있을까 싶었다. 무릇 수행자의 길이란 것이 무상(無常)의 본질을 성찰하고 그러한 깨달음을 실질적인 소수만으로 느끼지 못하는 가치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든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내가 아니면 문중이 무너질 것 같고 절이 망할 것 같이 호도하는 이기적인 기득권자들의 추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은가. 승단의 질서를 위해 종헌종법을 만들어 놓고도 인사권자가 소임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재임이라도 안 해주면 쫓겨난 듯 원망하는 풍토를 많이 본다. 이러한 일을 행정적인 시스템의 문제로만 돌릴 일일까.

진정 버려야 할 때 버릴 줄 모르는 수행자의 망각이 문제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도업 스님같은 사람은 참으로 멋지다. 수행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듯 하여 도반이지만 존경심이 느껴진다.

이제, 도업 스님은 구름이 되었다. 보통 구름이 되면 번개로운 대중생활을 벗어나 자유롭게 정진하고자 하는데, 스님은 계수름을 막겠다는 생각에서인지 아직도 대중선원에서 몇 월씩 난다. 나이가 들어도 불안하지 않고, 스스로 가난하러 하고, 때로는 전국을 만행하는 여유까지 가진 도업 스님. 많은 후학들에게 수행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 남양주 우형사 주지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갈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으나,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입보리행론>을 교제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전란공부, 제4장 보리심 불발일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활자에 불과했던 스타티마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타티마의 가르침에 달라이 라마의 승결이 더해지면서 <입보리행론>은 수행 지침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델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나 홀로 진행된 이 법회에서는 <입보리행론> 제5장 호계정지공덕부터 제8장 선정공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 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최입 참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채웠던 낭만적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학승과 티베트 불자까지 젖어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매년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문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수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입보리행론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최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리심 불발일품, 제5장 호계정지품 제 6장 인옥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타티마의 <입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층의 번역본과 종파 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A팀 : 12월 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 장소 :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 *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선정하신 분들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던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B팀 : 12월 3일 -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르나-바이살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리-인천 • 주관 : 여수 석선사 (진옥스님 061-662-1607)
--	---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수캐화로 제작

滿 行 靴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p>사계절 단화</p> <p>기압식 밑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 80,000원 • 색상 : 회색, 흑 	<p>방한용 털신</p> <p>털 밑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 60,000원 • 색상 : 회색, 흑 	<p>기능성 지압 깔창</p> <p>(동) 발병에 무릎받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 : 215-290mm(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	---	---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무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물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닥 깔창은 특수 항공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무대중님의 발관리에 도움을 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용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 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보시용으로 10쪽이상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상표등록 : 614981호
의장출원 : 제35672